

Morning Meeting Brief

Daishin's View

[Daishin's View] 2025년 3월 3주차

- 비미국 경기 저점 통과 시그널 유입, 한국에 이어 미국도 통화완화 기조 및 시장금리 하락 경로 확인 국면
- 글로벌 증시 가격 조정은 경기 불안심리 선반영 과정. 미국 물가안정, 중국경기 개선 등 반전 동력 유입 시 탄력적 반등 예상
- OPEC+는 4월 증산 발표했으나 러시아가 변수, Drill Baby Drill 효과 여전히 내년 유력

Global Strategy

[일본 마켓 레이터 Weekly / 3월 3주차 전략] 세 가지 키워드(BOJ, 연준, 라피더스) 주목

- 엔화, 140엔 대 진입 후 증시 투자심리 위축. 19일 3월 BOJ 금정위, 20일 3월 FOMC 등 미일 통화정책에 대한 주목도 커질 구간
- BOJ, 최근 현지 여론상 금리 동결 택할 것으로 예상. 연준, CME 패드워치 틀에 따르면 금리 동결 예측
- 엔화 강세 제한+증시 반등 기대. 日 정부, 25년 예산안 승인 앞두고 라피더스 지원 본격화. 대형 기술주 포함 사무라이7 종목 관심 필요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Commodity

R의 공포,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니라 말하는 원자재

- 30%까지 현금 늘린 버핏, 보수적 스탠스는 R 공포 자아내는 중. 다만, 정확한 방향 제시해도 발생 시점 맞추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 제조업 선행하는 중앙은행들의 정책금리 인하 순회수는 3/4분기까지 회복 방향 제시. 침체 척도인 구리/알루미늄 가격은 여전히 양호
- 경기 침체 직전까지도 아웃퍼폼하는 원자재, 2022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부진했던 점 감안하면 필요, 기존 회복 방향 여전히 유효

최진영. jinyoing.choi@daishin.com

ETF

\$3,000를 넘어선 금. 이 시기에 관심 가지면 좋을 금광주

- 신고가를 다시 한 번 경신한 금. 금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가격적으로 저평가된 금광주
- 금광기업의 마진은 금 가격과 AISC(All-in Sustainable Cost)의 스프레드를 통해 추정 가능
- 견조한 금가격과 광업 임금상승률 둔화, 천연가스 가격 하락은 금광 기업 마진 개선 국면

박현정. Hyunjeong.park@daishin.com

[Issue & News] 현대오트모터: 우려보다 반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

- AW2025 컨퍼런스 기조세션 및 부스 행사 진행, SDF 사업방향성 공유
- 1) 보수적인 가이드선, 2) 제한적인 수익성으로 로봇/SDV 관심서 소외
- 그룹사 스마트팩토리 전환에 따른 수혜 방향성 유효, 반등 고민 필요

김귀연, Gwiyeon.kim@daishin.com

[Issue & News] 기아: 자사주 매입 통한 배당락 변동성 축소 기대

- 주주가치 제고 위한 3,500억(349만주) 규모의 자사주 취득/소각 공시
- 6/11일까지 일 최대 350억원씩 매입 => 3Q24 내 전량 소각 예정
- 3/18일 배당락에 따른 변동성 확대 => 자사주&4/9일 CID 통한 방어

김귀연, Gwiyeon.kim@daishin.com

2025년 3월 3주차

[금리] 국고 3년 2.45~2.70%

한국에 이어 미국도 통화완화 기조 및 시장금리 하락 경로에 대한 확인 국면. 한국은 2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도 정치적 불확실성, 경기 비관론 등을 감안하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 다만 이미 인하 기대 선반영에 따른 레벨 부담. 미국은 소비 관련 지표 둔화가 가시화됨에 따라 시장금리가 하락 경로 진입. 더딘 인플레이션 진전, 국채 수급 우려로 금리 하락 폭과 속도는 점진적. 기준금리 인하 기대는 다시 부각

[환율] 달러원 환율 1,360~1,500원

연초 미국 경기 확장세 둔화 및 유럽과 일본을 포함한 비미국 경기 저점 통과 시그널 유입. 장기적으로는 신정부의 감세 및 규제완화 정책에 힘입어 미국이 성장동력 갖춤에 따라 강달러 추세를 예상하나, 단기 사이클 측면 미국-비미국 성장 격차 축소로 달러 추가 하락 시도 가능. 관세 위협 확대, 예상보다 빠른 예산안 처리 나타날 경우 달러 상승 및 변동성 확대 불가피. 그러나 1) 미 경제지표 부진 지속, 2) 중국 부양에 따른 경기 개선 기대에 위안화 강세, 3) 대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 나타날 경우 달러원 환율 하락폭 일시적으로 확대될 소지

[국내 증시] KOSPI 2,500 ~ 2,750p

미국 경기 둔화 우려와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 간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악재로서 영향력 확대 재생산. 급격한 글로벌 증시 가격 조정은 경기 불안심리, 트럼프 리스크 선반영 과정. 중국 양회(4일 ~ 5일), 미국 2월 고용지표(7일) 결과에 따른 등락은 저점 확인 과정. 선수요 유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3월 중순부터 미국 물가 안정, 중국 경기 개선 등 반전 동력 유입. KOSPI는 국내 정치적 리스크 해소, 원화 강세 압력 확대가 가세하며 탄력적인 반등 예상. 기초적인 연기금 순매수와 외국인 수급 개선이 KOSPI 상승에 탄력을 더할 전망. 3월 전반부 KOSPI 2,500선 초반에서 등락은 비중 확대 기회

[글로벌 증시] S&P500 5,450 ~ 5,950p

3월 글로벌 증시의 서광이 비춰지기 위해서는 1) 트럼프 관세정책에 대한 시선 전환(경계→안도), 2) 성장 둔화를 재해석할 수 있는 계기 필요. 다행히도 3월, 4가지 이벤트(12일 美 2월 CPI, 17~21일 GTC 2025, 18~19일 FOMC, 3월 말 미국무역대표부와 상무부 조사 결과)는 범 미국 증시가 다시 선호되는 요인이 될 것.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와 상무부 조사 결과는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가이드라인 역할.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시장 반색 기대. 하반기로 갈수록 서광의 강도가 강해지는 장세 기대

[원자재] WTI 65~76\$/bbl.

OPEC+가 계획(4월부)대로 단계적 증산 나설 것이라 발표했으나 러시아는 상황 따라 다시 증산 계획 연기할 수 있다 강조. 예상대로 재정균형유가가 적자로 전환되자 보수적으로 접근. 마찬가지로 CERA Week 참석한 미 셰일 기업들은 유전/가스전 개발 투자 어렵다 강조, 유가가 신규 유정당 개발 비용 훼손하며 투자 지연. Drill Baby Drill 효과는 여전히 내년 유력

[부동산] 주택 : 보험, 상업 : 보험.

주택 : 전국 음(-)전, 서울 상승률 둔화

상업 : 임대료 상승률 둔화, 공실률 증가, 매도 물량 증가

Global Strategy

Global Strategist 문남중
namjong.moon@daishin.com

세 가지 키워드 (BOJ, 연준, 라피더스) 주목

- 19일 BOJ 금정위, 20일 FOMC 등 미일 통화정책에 대한 주목도 커질 주간
- BOJ, 최근 현지 여론상 금리 동결 택할 전망. 연준, 금리 동결 예측
- 엔화 강세 제한+증시 반등 압력. 정부, 라피더스 지원 본격화. 기술주 관심

2,202일 이후 엔화가 140엔 대에 접어들면서 일본 증시(TOPIX)도 박스권 하단 테스트(3.11일)를 할 정도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었다. 이로 인해 3.19일 BOJ 금정위, 20일 FOMC(현지시각 18~19일) 등 미일 통화정책에 대한 주목도가 커질 주간을 맞이했다.

BOJ는 150엔 대로 접어든 엔화 흐름, 3월 춘투 임금협상 결과, 올해 1월 금리 인상 효과 확인,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불확실성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금리 동결을, 반대로 현 경제, 물가 인식하에 완화적 금융여건이라는 해석을 고집할 경우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 최근 현지 여론은 전자를 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이다. 이는 엔화 강세가 제한되면서 일본 증시가 박스권 하단을 사수하며 반등을 시도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20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3월 FOMC는 CME 패드워치 톨에 따르면 금리 동결 확률이 98.0%(16일, 08:02:00 CT)이다. BOJ 통화정책과 맞물려 엔화 강세를 제한하는 역할을 통해 최근 146엔 대에서 149엔 대로 약세 압력을 보여왔던 엔화 흐름이 연속선상에 놓일 가능성을 키운다.

최근 일본 정부는 25년 예산안 승인을 앞두고 정부 주도의 대규모 자금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첨단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는 라피더스로 정부는 은행 대출에 대한 채무 보증 허용 법안 개정을 통해 라피더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는 9,200억 엔으로 25년 추가로 1,000억 엔을 투자할 예정이다. 엔화 강세 제한과 일본 증시가 박스권 하단을 지키며 반등 흐름을 보일 때 반도체 등 대형 기술주가 증시 반등세를 주도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를 포함한 사무라이7 종목(도요타 자동차, 미쓰비시, 어드반테스트, 도쿄 일렉트론, 스바루, 스크린홀딩스, 디스코)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번 주 중요 경제지표 및 이벤트(25.3.17~3.23)

경제지표 & 이벤트명	국가	일정	전기치	예상치	방향성	내용 및 시사점		
3월 BOJ 금정위	일본	3.19	0.50 %	0.50 %	-	1월 금정위 이후, 엔화 강세 흐름 감안 시 금리 동결 여지 상존		
3월 FOMC	미국	3.20	4.5 %	4.5 %	-	관련 포인트는 3월 수정경제전망, 25년 최종정책금리 조정 여부		
2월 CPI / 근원	일본	3.21	4.0 / 3.2 % YoY	3.5 / 2.9 % YoY	▼ / ▼	예상치 부합 시, 트럼프발 통상정책 불확실성과 함께 금리 동결 배경		
일자	국가	주요 지표		기간	단위	전기치	예상치	대비
3.19	일본	BOJ 금정위		3월	%	0.50	0.50	-
	일본	수출 / 수입		2월	% YoY	7.2 / 16.7	- / -	- / -
3.20	일본	휴장(춘분절)						
	미국	FOMC		3월	%	4.5	4.5	-
3.21	일본	CPI / 근원		2월	% YoY	4.0 / 3.2	3.5 / 2.9	▼ / ▼

기준일: 25. 3. 14
자료: Bloomberg, 대산증권 Research Center

R의 공포,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니라 말하는 원자재

- 현금 늘린 버핏. 다만, 방향은 맞지만 수요 파괴 발생 시점은 아니라는 점
- 상승 제시하는 선행 지표들. 침체 척도인 구리-알루미늄 갭은 여전히 양호
- 경기 침체 직전까지도 아웃퍼폼하는 원자재, 지금은 저가 매수 나설 시점

현금 늘린 버핏, 그러나 구리가 수요 파괴 시점까지 맞추는 것은 아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유 비중은 30%에 근접했다. 트럼프발 상호 관세와 해고 우려가 스태그플레이션(S)이라는 망령을 불러들이는 가운데, 위험 자산에 대한 구리의 보수적인 스탠스는 수요 파괴(R) 우려까지 자아내고 있다. 다만, 구리가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더라도 수요 파괴의 발생 시점까지 맞추는 것은 아니다. 과거 미국발 금융위기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린 지 3년 후에 발생했다. 불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위험 자산을 버릴 시점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여전한 상승 가능성, 당장 수요 파괴는 아니라고 말하는 원자재

원자재는 기존 View와 동일하게 2/4~3/4분기 상승이 유효하다. 1)선행 지표는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 제조업 경기를 선행하는 중앙은행 정책금리 인하 순-회수는 3/4분기까지 상승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Re-Stocking 시즌을 앞두고 원자재 수요(수요 모멘텀)-공급(개발 투자) 사이클 지수 또한 상승 여력이 남았음을 보여준다.

2)잠깐이지만 Non-US가 상대적으로 강해질 구간에서 가격 디스카운트 요인인 달러화 역시 진정될 수 있다. 미국 기업들은 관세 우려 탓에 대선 이후 추진 예정이던 투자 계획을 잠시 연기하기 시작했다. 반면, 중국은 관세에 맞서 부양책을 강화하려 한다. 총선을 마친 독일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은 유럽에 대한 개선 기대감으로 연결되고 있다. US-Global Economic Surprise Index 스프레드가 말해주는 것처럼 후행적으로 달러화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3)수요 파괴의 척도로 활용되는 구리-알루미늄 가격 갭을 보더라도 아직 침체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 구리는 건설, 가전/전자제품, 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금속이다. 알루미늄은 그런 구리 가격이 비쌀 때 대체(1.0:2.5)할 수 있는 상품으로 고순도 구리가 불필요한 수요처(65%)들에게 매력적이다. 일반적으로 2.5톤의 알루미늄 가격이 구리의 0.9배에 근접할 경우 기업들의 대체 수요는 감소하게 되며, 이는 설비 투자(고용) 감소로 까지 이어져 수요(앤드유저 소비) 파괴를 유발한다. 반면, 지금은 0.75배 수준으로 수요 파괴가 발생한 2022년 3월 또는 2018년 10월과 크게 대비된다. 이들은 지금도 비용을 전가시킬 여력을 갖고 있다.

경기 침체 직전까지도 아웃퍼폼하는 원자재, 지금은 저가 매수 나설 시점

시장은 S와 R 모두를 논하고 있다. 그러나 자산별 사이클을 살펴보면 성장주 중심인 Recovery 단계 이후에는 현금 중심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닌 원자재 중심의 Boom 단계로 진입한다. 경기 침체 직전까지도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이 경기 동행(또는 다소 후행) 자산인 원자재이다. 그런 원자재 지수가 2022년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부진했던 점을 감안하면 아직 S와 R의 공포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 그러한 점에서 올해 2/4~3/4분기는 낙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저가 매수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ETF

ETF 박현정

hyunjeong.park@daishin.com

\$3,000를 넘어선 금. 이 시기에 관심 가지면 좋은 금광주

금 가격은 장 중 3,000달러를 돌파. 역사적으로 신고가는 저항선으로 작용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지속되면서 높아진 불확실성과 선수요가 발생하면서 장 중 금 가격은 3,000달러를 넘어선 모습. 금 가격은 역사적으로 신고가가 저항선으로 작용했음. 단기적으로 가격 모멘텀이 존재할 수는 있겠으나, 최근과 같은 상승 탄력성을 유지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 수준이라는 판단

금 가격이 오를 때면 궁금해지는 금광주. 현재 가격 측면에서 금보다 저평가

금광주는 그동안 금 가격이 상승한 것에 비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왔음. 가격 측면에서는 여전히 금에 비해 저평가된 구간

금광주 ETF 주가는 금 가격과 AISC(All-in Sustaining Cost)의 스프레드와 유사하게 움직였던 모습. AISC는 금 1온스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을 의미. 스프레드를 통해 금광 기업의 마진 예상 가능

임금과 천연가스 가격 하락은 금광주의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국면

AISC 구성항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임금/계약금 23%, 탐사/유지 비용 17%, 전기/연료 비용 14% 등으로 구성. 임금과 에너지 관련 비용의 비중이 높은 편

천연가스는 최대 소비 기간인 난방 시즌이 종료되는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계절적으로 약세를 나타내는 경향. 또한 연초 이후 미국 광업/별목 부분의 종업원 평균 임금 상승률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금 가격이 건조한 흐름 보이는 상황에선 임금과 천연가스 가격의 하락은 금광기업의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국면

관심 ETF: VanEck Gold Miners ETF(GDX)

GDX는 글로벌 금광 기업들의 성과를 추종하는 상품. 그러나 금광주로만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 기타 귀금속 채굴 기업도 포함되어 있음

국가별 투자 비중은 캐나다 44.6%, 미국 16.5%, 남아프리카 10.9%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포트폴리오내 보유 종목은 뉴몬트 1.8%, Agnico Eagle 11.7%, 그리고 워렌 버핏이 투자했던 베릭골드도 7.5% 보유하고 있음

현대오토에버 (307950)

김귀연

gwiyeon.kim@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210,000

유지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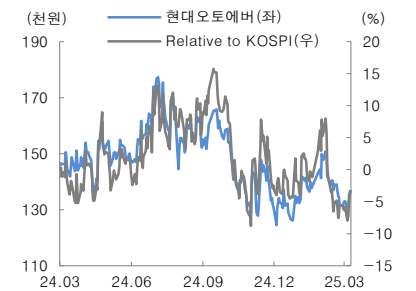
(25.03.14)

136,700

자동차업종

KOSPI	2566.36
시가총액	3,749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17%
자본금(보통주)	14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77,300원 / 124,5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00억원
외국인지분율	1.89%
주요주주	현대자동차 외 3 인 75.29% 국민연금공단 7.21%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2.7	3.1	-14.7	-8.8
상대수익률	-1.8	0.2	-14.4	-3.4



우려보다 반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

- AW2025 컨퍼런스 기조세션 및 부스 행사 진행. SDF 사업방향성 공유
- 1) 보수적인 가이던스, 2) 제한적인 수익성으로 로봇/SDV 관심서 소외
- 그룹사 스마트팩토리 전환에 따른 수혜 방향성 유효. 반등 고민 필요

현대오토에버, 2025 스마트공장/자동화 산업전(AW2025) 참가

3/12~14일, AW2025년에 참가해 1) SDF(SW Defined Factory) 위한 NNNEO Factory 솔루션 전시부스 운영, 2) 기조 세션(SDF로의 DI/DX Journey) 진행. SDF는 인공지능이 생산/품질/데이터 관리 등 시스템을 SW로 통합하고 제어 하는 공장의 개념. 당사는 자체브랜드 ‘NNNEO Factory’ 통해 관련한 솔루션 소개. 기조 세션에서는 SDF의 개념, 추구하는 방향성, 경쟁력에 대해서 설명. 공장 내 다양한 로봇 협동/생산성 향상 위한 지능화 담당 기능성에 대해서도 언급. 금번 행사에 현대차그룹에서는 현대글로벌비스와 동사가 참여. 현대글로벌비스는 보스턴다이나믹스의 Stretch(물류로봇)/Spot(4족보행로봇) 활용한 물류 솔루션 전시. 현대차그룹의 1) 스마트팩토리 적용 확대 및 2) 외부 판매 과정에서 양사의 사업 기회 재차 확인

공개된 보수적인 가이던스, 얼마나 상회할지가 관건

2/24일 공시된 동사의 2025년 매출 가이던스는 3.9조원(YoY +5.2%). 이는 당사 추정/시장 컨센 4.1조 대비 다소 부진. 이는 [차량SW] 완성차 보수적인 판매 가이던스에 따른 내비 성장 제한, [Enterprise IT] 높은 기저에 따른 영향 이라 판단. 다만, 당사는 2023/24년 매출 가이던스 대비 +2.2%/+7.3% 상회 하는 양호한 실적 기록. 4Q24 고객 IT 예산집행 확대로 1Q25 QoQ 실적 기대 제한적이나, 2025년 연중 Enterprise IT 프로젝트 및 차량SW(차량SW 외) 매출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 여부에 주목

주가 소외 지속. 우려보다는 반등 트리거에 대한 고민 필요할 때라 판단

보수적인 가이던스/제한적인 수익성에 우려로 주가 소외 지속(2021~25년 PER밴드 하단 도달). 추가적인 우려 반영보다는 1) 2025년 HMG 차세대ERP 전환과 스마트팩토리 적용 확대, 2) 레벨3 자율주행 상용화 가시화됨에 따른 상회 가능성에 초점 맞출 필요. 2026년 이후, HMG-보스턴다이나믹스 로봇 활용한 물류 자동화 솔루션 확대 가능성. 이에 따른 스마트 팩토리/로봇 관제 고도화 개연성 유효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3A	2024A	2025F	2026F	2027F
매출액	3,065	3,714	4,122	4,763	5,503
영업이익	181	225	254	332	397
세전순이익	182	227	259	337	394
총당기순이익	140	175	200	260	305
지배지분순이익	138	171	196	256	0
EPS	5,023	6,229	7,157	9,325	0
PER	42.1	20.2	20.2	15.5	#DIV/0!
BPS	57,611	62,411	68,140	76,037	74,608
PBR	3.7	2.0	2.0	1.8	1.8
ROE	9.0	10.4	11.0	12.9	0.0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현대오토에버,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기아 (000270)

김귀연

gwiyeon.kim@daishin.com

투자 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50,000

유지

현재주가

99,500

(25.03.14)

자동차업종

자사주 매입 통한 배당락 변동성 축소 기대

- 주주가치 제고 위한 3,500억(349만주) 규모의 자사주 취득/소각 공시
- 6/11일까지 일 최대 350억원씩 매입 => 3Q24 내 전량 소각 예정
- 3/18일 배당락에 따른 변동성 확대 => 자사주&4/9일 CID 통한 방어

2025년 상반기 자사주 매입 3,500억원 확정

3/14일 공시 통해 3,500억원의 자사주 매입 발표. 당일 시총 39.6조원 대비 0.9%에 해당하는 규모로, 3/20~6/11일 동안 매입 계획. 매입한 자사주는 3Q25 내 전량 소각 계획. 2025년 주주가치 제고 계획(1/23일) 통해 발표한 연간 자사주 매입 규모 7,000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로, 밸류업 정책 충실히 이행중

배당락에 따른 변동성 확대 => 자사주 수급/4월 CID 통한 방어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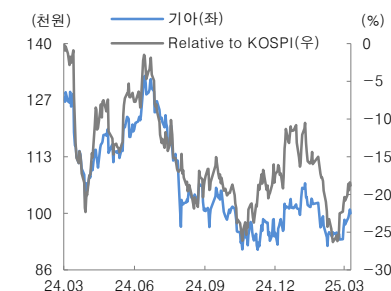
동사는 3/19일을 배당기준일로 하여 주당 6,500원(시가배당률 6.5%)의 결산 배당 지급 예정. 이에, 3/18일 배당락에 따른 단기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 참고로, '24년 결산 배당락(3/19) 당일, 주가는 -7% 하락한 이후, +1M 주가 수익률 +8% 기록. '25년은 1) 3/20일 자사주 매입, 2) 4/9일 CEO Investor Day 모멘텀 통한 주가 방어 기대. 금번 자사주 매입 일 주문 수량 한도는 34.9만주로 이사회 결의일 전일 종가(100,400원) 기준, 350억원 수준. '25년 일평균 거래대금/거래량은 각각 1,189억원/121만주로, 일간 자사주 매입 한도대비 29% 수준

배당락에 따른 주가 변동성 확대 시, 저점 매수 전략 유효

2025.02월 누적 기아 판매는 49.4만대로 YoY +1.1% 증가. 내수 8.4만대(-4.8%), 해외 40.1만대(+2.3%), 북미 16.8만대(+3.2%), 유럽 9.3만대(-9.0%) 판매고 기록하며, 2025년에도 북미 중심의 견조한 판매 흐름 지속 중. 고환율 또한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1Q25 실적 부담 제한적. 배당락에 따른 주가 변동성 확대 시, 저점 매수 관점에서 관심 지속할 필요

KOSPI	2566.36
시가총액	39,568십억원
시가총액비중	1.84%
자본금(보통주)	2,117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32,300원 / 90,8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170억원
외국인지분율	38.99%
주요주주	현대자동차 외 4인 36.31% 국민연금공단 6.64%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4.7	1.4	-1.0	-22.6
상대수익률	5.7	-1.4	-0.6	-18.0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3A	2024A	2025F	2026F	2027F
매출액	99,808	107,449	112,000	117,163	122,564
영업이익	11,608	12,667	12,078	12,818	12,557
세전순이익	12,677	13,520	13,294	14,203	13,620
총당기순이익	8,778	9,791	9,627	10,286	9,863
지배지분순이익	8,777	9,789	9,627	10,286	9,863
EPS	21,770	24,454	24,209	25,865	24,803
PER	4.6	4.1	4.3	4.0	4.2
BPS	115,468	135,202	153,869	173,293	191,655
PBR	0.9	0.7	0.6	0.6	0.5
ROE	20.4	19.4	16.7	15.8	13.6

주: EPS와 BPS, ROE는 지배지분 기준으로 산출
자료: 기아,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